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가꾼 작물을 거두어들이듯, 여기 짧게는 3년, 길게는 19년간의 노력을 수확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시를 치르는 3학년 학생들입니다.

밤늦도록 켜진 불빛 아래, 술한 고민과 간절한 바람으로 채워진 시간들. 그들의 하루하루가 어떤 의미였는지, 노력의 결실을 맺으려는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인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기획·제작 | 키온 기획부 이아인(음악과 45기)
촬영 | 키온 제작부 손하울(미술과 46기)

출연 | 민하은, 안희주, 방소현, 박예서

The Autumn



미술과 44기 | 민하은

Q. 계원예술고등학교에서의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A. 서양화과 <아임파인> 전시 DP 경험이에요. 벽에 못을 박고 좌대에 천을 씌우며 천장 모든 조명에 동그란 켄트지를 덧붙이던... 그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기까지 쏟은 노력과 헌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죠.

DP 일정이 미뤄진다는가, 외부에서 빛이 들어온다는가 하는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전시를 준비하며 전공 선생님, 또 친구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일 수 있어 정말로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이제는 미술과만의 시설 좋은 갤러리가 생겨서, 벽강 갤러리에서의 추억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게 된 것 같아 아쉽기도 하네요.

The Autumn

Q. 수능과 입시를 앞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나요?

A. 부모님께서 저의 가장 큰 버팀목이세요. 한 분은 극 T셔서 정신이 번쩍 드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다른 한 분은 극 F셔서 제 고민에 깊이 공감해주시거든요. 덕분에 다방면으로 위안을 받아올 수 있었어요.

두 분 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결과는 상관없다고 늘 말씀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일궈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려서 두 분께 보답하고 싶어요.



The Aut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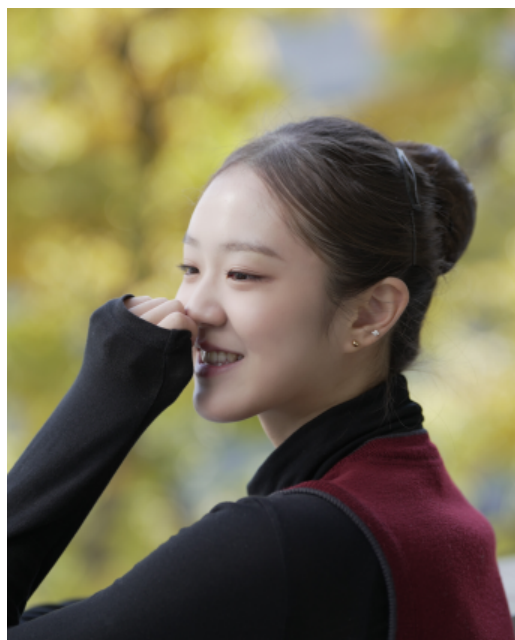
무용과 44기 | 안희주

Q. 계원예술고등학교에서의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A. 계원무용제에서 ‘Malaguena’라는 캐릭터 댄스 작품에 참여한 일이 가장 의미 있었죠. 클래식 발레와는 또 다른 표현력과 에너지가 필요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몸으로 표현하는 즐거움을 새롭게 느꼈어요.

특히 군무가 많은 작품이라, 팀워크와 호흡의 중요성을 많이 배웠고, 무대에서 서로가 어우러질 때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도 경험했어요. 제게 무대에 서는 즐거움과 자신감을 심어줬을 뿐만 아니라 춤을 출 때의 마음가짐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The Autumn



Q. 바라던 대학교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비 대학생으로서, 또는 무용수로서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감사합니다. (웃음) 바라던 한예종에 합격하고 나니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함께 느껴요.

대학에서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고 표현력과 예술성을 더 깊이 발전시키는 게 목표예요. 무용의 다양한 장르와 작품을 경험하면서, 발레를 폭넓게 이해하고, 저만의 매력과 색을 가진 무용수로 성장하고 싶어요.

The Autumn

Q. 계원예술고등학교에서의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A. 실패해본 경험이 소중한 것 같아요. 저는 2학년 때 들어온 전입생이거든요. 처음 실기 평가 점수를 봤는데 꼴등이더라고요. 그 후에도 수도 없이 실기평가를 망치고, 많이 울기도 했는데, 덕분에 제가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요. 후회하면 괜히 나만 힘들어진다는 걸 깨닫고 후회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게 눈 꼭 감고 ‘그냥 해보지 뭐’ 하는 법도 배웠네요. 우리 아직 어리잖아요. 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은 대입 결과가 대박일지 쪽박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두어 보죠, 뭐. 아, 모르겠다! (웃음)



The Autumn

Q. 한창 실기 시험을 치르고 계신데,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들 중 시험장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여러 번의 공연 실습이요. 우리 학교 연기 전공의 장점 중 하나죠. 객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시험장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시험장에 들어서는 순간 숨을 크게 쉬고 내 안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공연을 한다는 느낌으로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흔들리더라도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나머지 시험에 충실해야죠!



The Autumn

Q. 계원예술고등학교에서의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A.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되어 정기연주회에 선 경험이 특별했죠. 특히 리더에게 따르는 책임의 무게를 배워서, 제게 가장 의미 있는 경험으로 남았어요. 어떤 때에는 그 무게가 무겁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값지다는 걸 알아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죠.

악장으로서 가장 바랐던 것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협연자들, 그리고 관객이 모두 만족하는 연주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통솔자로서는 단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대표로서는 좋은 반주를 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연주자로서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임감을 실감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The Autumn



Q. 고등학교 생활 동안 꾸준하고 또 성실할 수 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 저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꼭 노는 게 아니라도 같이 연습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행복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며 좋은 자극을 받기도 했고요. 힘든 입시 기간에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마음에도 많은 의지가 되었어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과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3학년 담당이 아니신 데도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힘든 시기에 큰 동기가 되었어요.



계원예술고등학교
KAYWON HIGH SCHOOL OF ARTS